

잠자는 숲속의 미녀·메시아·운명 교향곡... 풍성한 송년무대



광주시립발레단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공연계 분위기가 여느 해와는 달랐다. 올 초 계획된 공연들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됐으며 공연장 문이 닫히기도 했기 때문이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다 싶어 공연을 진행하려고 하면 다시 늘어나는 확진자 때문에 공연이 취소되기 일쑤였다.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이 올해 코로나 19로 많은 관객을 만나지 못한 만큼 다양한 송년공연을 준비했다.

먼저 광주시립오페라단은 국립오페라단과 공동으로 제작한 오페라 '라보엠'으로 관객과 만난다. 오는 20일~12월1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라보엠'은 세계에서 가장 사랑 받는 오페라 중 하나로 푸치니가 앙리 뒤르제의 소설 '보헤미안들의 인생 풍경'을 바탕으로 작곡한 전 4막의 오페라다. '내 이름은 미미', '그대의 찬 손', '무제타의 왈츠' 등을 들려준다.

이번호(광주시립오페라단 선임 예술감독), 세바스티안 랑 레싱(지휘), 김숙영(연출)이 참여하며, 서선영·강요섭·최원휘 등 오페라 스타들이 무대에 오른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캐롤과 성가곡의 밤'을 선보인다. 오는 12월 5일 오후 5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헤지는 저편'을 시작으로 '주께 향한 나의 감사', '찬양 할 수 있는 은혜', '캐롤 메들리' 등을 들려준다. 또, '별빛속에 빛나는 주님', '우리를 위해 나셨다' 등도 무대에 올린다. 조선대 합창단 지휘자, CBS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역임한 객원지휘자 김운영이 지휘봉을 잡으며, 티켓가격은 전석 1만원이다.

광주시립합창단은 12월 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헨델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공연한다.

헨델의 '메시아'는 세계 3대 오라토리오 중 하나로 클래식 애호가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 곡이다. 공연은 총 3부로 구성됐으며, 아름다운 서창, 웅장한 합창, 아리아 등을 들려준다. 1부 '예언과 탄생'은 예수의 예언과 탄생을 이야기하며, 2부 '수난과 속죄'는 예수의 고난과 부활, 승천, 복음을 들려준다. 3부는 '부활과 영원

광주시립예술단체들, 다양한 공연 준비

'라보엠'·'캐롤과 성가곡의 밤'·'연극적 환상' 남상일·송소희 참여 국악관현악단 음악회

한 생명'으로 신앙 고백과 영성에 대한 찬미를 담고 있다.

김인재 상임지휘자가 지휘를 맡았으며 알테 무지코 서울이 협연하고, 소프라노 강혜정, 알토 양승미, 테너 이원준, 바리톤 박홍우 등도 함께 무대에 오른다. 전석 1만원.

광주시립극단의 '연극적 환상'은 12월10~12일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작품은 프랑스 작가 피에르 코르네유의 작품을 원작으로 하며, 사라진 아들을 찾고 있는 아버지가 마술사 동굴 근처로 찾아오면서 시작된다. 강원도립극단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2018년 제1회 대한민국 극작가상을 수상한 광주 출신 선옥현이 각색·연출을 맡았다. 전석 1만원.

광주시립교향악단 공연은 오는 12월 1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교향악단은 올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베토벤의 곡으로 무대를 꾸민다.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코리올란 서곡', '피아노 협주곡 4번 G



문지영 송소희 남상일

장조', '교향곡 5번 C단조 운명' 등이다. 장운성 서울대 교수가 지휘봉을 잡으며, 피아니스트 문지영이 무대에 오른다. 장 씨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객원지휘자, 일본 오사카칼리지 오페라 하우스 상임지휘자 등을 역임했으며, 문 씨는 스위스 제네바 콩국제 쿠르와 이탈리아 부초지 국제 콩쿠르에서 연이어 우승을 차지해 화제가 됐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송년음악회는 12월 15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매년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힘을 북돋아주는 국악으로 송년음악회를 꾸미는 국악관현악단은 올해 소리꾼 남상일과 김산옥을 사회자로 초대해 흥겨운 국악한마당을 선사한다.

소리꾼 이난초와 소리북 연주자 이태백이 함께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으로 흥을 돋우며 소리꾼 남상일이 '장타령'을, 가야금 연주자 성애순이 '최옥삼류 가야금산조'를 연주한다. 공연의 대미는 송소희가 장식한다. 송 씨는 이날 무대에서 '태평가', '오나라', '아리리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입장료 전석 1만원.

광주시립발레단은 사랑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최고의 판타지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무대에 올린다. 오는 12월18일 오후 7시 30분, 19일 오후 2시·7시30분, 20일 오후 2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안무가 마리우스 피티파와 작곡가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만남으로 탄생할 걸작이다.

이번 공연은 최태지 예술감독이 총연출을 맡고 장운규 부예술감독과 안무가 전효정이 제안무를 맡았다. 또 광주시립교향악단이 함께해 발레에 음악의 감동을 더하며 연세대 명예교수인 최승환 객원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다. 오로라 역은 강은혜·강민지 단원과 전 국립발레단 수석 김지영 발레리나가 맡았다. 데지레 왕자역은 이기광·보그단 플로피뉴·우견희 단원이 연기한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모든 공연은 코로나19 예방 수칙에 따라 좌석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다시 읽는 중견시인 10인의 첫 시집 문학동네 '복간시집 포에지' 출간

문학동네는 중견 시인들이 처음 펴낸 시집을 복간하는 프로젝트를 '문학동네포에지 <사진> 첫 번째 시리즈'로 시집 10권을 최근 펴냈다. 자사 외에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했던 시집들도 포함해 시인들의 청년기를 이 시대에 복원해내는 의미가 깔렸다.



1저본에는 김언희의 첫 시집 '트렁크'를 필두로 김사인 '밤에 쓰는 편지', 이수명 '새로운 오독이 거리를 매웠다', 성석제 '낯선 길에 묻다', 성미정 '대머리와 사랑', 함민복 '우울씨의 일일', 진수미 '달의 코르크 마개가 열릴 때까지', 박정대 '단편들', 유형진 '피터래빗 저격사건', 박상수 '후르츠 캔디 버스'가 포함됐다. 2저본 복간 계획도 확정됐다. 김옥영, 이문재, 염명순, 안도현, 정은숙, 조연호, 김민정, 최갑수, 이영주, 이현승 시인의 첫 시집이다. /연합뉴스

소외된 감정의 흔적 '긍정적 뜨내기'

광주신세계미술제 신진작가상 박두리 초대전, 12월 8일까지

2018년 제19회 광주신세계미술제에서 신진작가상을 수상한 박두리 작가 초대전이 오는 12월 8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프로젝트:긍정적 뜨내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박 작가는 우리가 일상에서 지나치는 풍경, 그 안에서 다시 소환되는 소외된 감정들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내는 백일몽의 이미지를 평면작품으로 표현해낸다. 비현실적인 세계를 상상하는 백일몽은 캔버스 위에 유화로, 또는 그 유화의 이미지로 편집된 영상으로 나타난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조금은 기이한 행위들은 총족될 수 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반복되지만 더 이상 그 목적을 상실한 듯 느껴지며 각기 다른 이야기와 숨겨진 감정들을 담고 있는 전 시작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색다른 관람객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박 작가는 지난 미술제 심사평에서 "동양화를 전공했지만 최근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유화 페인팅 작업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냈고, 특유의 재기발랄하고 자유로운 조형감각이 두드러졌다"는



'sunday'

평을 받았다. 전주 출신으로 홍익대 동양화와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대만 타이베이 관두미술관(KdMoFA), 전북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활동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임방울 국악제 대통령상 판소리 명창부 서정금씨

제28회 임방울 국악제에서 판소리 명창부 서정금(사진) 씨가 영예의 대상(대통령상)을 차지했다. 경기도 남양주 출신인 서 씨는 '심정가 중 가곡의 대목'을 불러 경연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상에는 상금 4000만원과 1000만 원 상당의 순금 트로피가 수여됐다.



지난 20~23일 광주시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임방울국악제는 일제강점기 민족의 한(恨)을 소리로 달래던 임방울(1904~1961) 명창의 예술혼을 기리는 국악 축제다.

올해 시상금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학생부 40명, 명창·일반부 32명 등 122명에게 총 1억9800만원의 상금을 시상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